

신입 종무원들, '불교 기본'을 배우다

조계종 총무원, 제1기 종무행정학교 문 열어

2년 미만의 초급 종무원들에게 전문적 종무 행정과 사찰 문화, 종단사 등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는 종무행정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무행정학교 제1기 기본소양과정을 개원했다.

합리적 사찰 운영을 위한 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는 불교적 소양과 종무 역량을 함께 갖춘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는 예비와 2년 미만의 신입 종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종무행정학교에는 예비 종무원들이 30명이 신청해 높은 호응을 보였고, 이중 10명의 인원을 선별해 총 54명의 예비·신입 종무원들이 과정에 참가했다.

6일 열린 입학식에서 총무부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무행정학교 제1기가 시작한 오늘은 종단 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깊은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시급적 절박함이 있어 오를 먼저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무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서 종단 사회의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포착하는 첨병이자 실질적으로 한

국불교와 종단을 유지해주는 기둥"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종무원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새롭게 힘과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 이후에는 교육부장 법인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법인 스님은 '종무원, 일과 수행'이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예비·신입 종무원들에게 종무원으로서의

3월 6~9일 전통불교문화원서 종무 실무·종단 역사 등 강의 예비 종무원 10명 참석 '눈길' "사찰 사무장이 불교의 얼굴"

일과 불자로서의 수행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법인 스님은 법문에서 "나는 조계종 종현 종범을 기반으로 교육 행정 체계를 만들어 가는 수행자"이라며 "종무 행정과 수행을 둘로 나눠 생각한다면 이는 신입 종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달하는 업무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직업과 삶의 의미, 수행을 나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열린 제1기 종무행정학교 기본소양과정에서 '종무원, 일과 수행'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종단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종무행정학교 참석해 예비·신입 종무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총무원 문화부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한 바 있는 김도원(26) 씨는 "기본적으로 불자이고 문화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전공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됐다"며 "평소 문화재 전문 종무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가졌던 만큼 이번 종무행정학교가 종무원으로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불교 종무에 관심이 많아 사찰 종무원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는 고선자(54) 씨는 "일반인이 처음 사찰에서 와서 만나는 사람이 사찰 사무장이나 종무원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은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불교를 일반인에게 친절하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교육은 향후 올바른 태도를 가진 종무원을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종무원은 종무행정학교 기본소양을 이수한 예비 종무원들에 대해 인용에 있어 가산점을 부과하고, 일선 사찰과의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통일된 교재와 강사 섭외 등 세부적 부분도 보완해 상설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조계종 총무차장은 "장기적으로 종무행정학교는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종무행정학교 상설화는 종무원 고용체계 확립과 종무원 배출, 배치와 순환이라는 구조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태화산=신종일 기자



대행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큰 일꾼이 돼 주십시오"

한마음선원, 인재장학금 전달...42명 1억 3천만원 지원

한마음선원 대회장학회(이사장 해수)는 3월 3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제8회 대회장 장학 증서 수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수여자는 42명으로 총 1억 3850만원이 지급됐다.

인재장학생으로 선정된 김원성 학생(카네기멜론대 3학년)은 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대회장장학생으로 선정된 윤홍선(동국대 3학년)의 8명, 한마음장학생으로 선정된 나태형(세종대 3학년)의 7명과 구지훈(선일여고 3학년)의 15명이 2~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이번 전달식에서는 경인교대의 불심이

돈독한 우수학생 9명에게도 전달됐다. 대회장학회는 대령 스님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며 2004년 설립한 단체다.

이사장 해수 스님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마음으로 전달하는 큰스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의 뜻을 받아 학문뿐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의현 스님 청구, 종단 정통성 부정"

조계종 중앙종회, 연석회의 열고 입장 정리

의현 스님의 청구를 다루기 위해 중헌 위법 결정을 한 법규위원회에 대해 중앙종회가 비판입장을 정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는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중헌 위법 결정을 한 법규위원회가 중헌의 삼권분립 취지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종회의원 스님들은 "의현 스님이 법규위에 심판을 청구한 내용은 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법규위에 이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한 것도 모순이며 다룰 사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3월19일 제193회 임시회 개최 전 의장단이 법규위원장 허운 스님을 만나 법규위 결정에 대한 중앙종회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법규위 위헌 결정에 대한 이유를 듣고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결정했다.

신종일 기자

"생과 死 없음을 알려주신 분"

법정 스님 3주기 추모법회 및 진영봉안식 봉행

법정 스님의 입적 3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진영 봉안식이 3월 7일 길상사에서 열렸다.

11시부터 열린 추모법회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실천해야 참 법정 스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며 짧은 법문을 전했다.

광주 무각사 주지이자 초대 길상사 주지인 청학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

는 심정을 몰으니 생과 사가 본래 없다고 대답하셨다"며 "그 말씀이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크나큰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추모 법회가 끝난 후 법정 스님의 영정 봉안식이 진영각에서 열렸다. 이곳에는 스님 영정과 함께 유품 4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3월 10일에는 박창근 밴드를 초청 3주년 추모음악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개최했다. 글=정혜숙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3월 7일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 3주기 추모법회와 진영 봉안식에 참석한 불자가 진영을 참배하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 日밴드 고소

'매춘부·죽여라' 동영상 유포 명예훼손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 등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모독한 일본 록밴드를 피해자 할머니들이 검찰에 고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소장 안선권)은 일본 록밴드 엔란무류(櫻亂舞流)에 대한 피해자 8명 명의의 고소장을 3월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힌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 등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일본 록밴드 엔란무류는 유튜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공연하게 '매춘부'라고 부르면서 '죽여라'고 비방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이다. 또한 엔란무류는 일본 도쿄에서 나눔의 집으로 2월 28일본 CD와 A4 용지에 '매춘부 할망구들' '죽여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나은 기자

관련 칼럼 31면

쌍계사 율학승가대 학원 설립 인가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성조)에서 신청한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설립이 인가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운스님)은 3월 7일 제13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가된 '쌍계율학승가대학원'은 종단의 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경분별' '범망경 및 대승계경 강독' '불교윤리학' '자법(수계의식)' 등 교과목을 편성했으며, 쌍계사 내 암자인 '국사암'을 율학승가대학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지 성조 스님은 "율장 수학을 통해 승가의 기본질서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일 기자

참선 지혜의 체험 - 활인선원 금강단식

3,6일간의 깨달음

참선인가? 몸과 마음,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왜 참선인가? 불법 중에 가장 뛰어난 법이라는데 정말 그랬는가?
 참선인가? 화두참선 다시 해보자! 뭐가 달라 지는가?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 아토피 금연금주속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3kg 한달25kg

수련회 6월 3월 22일(목) ~ 27일 4월 19일(목) ~ 24일 5월 3일(목) ~ 8일
 선 회 3월 3월 22일(목) ~ 24일 4월 19일(목) ~ 21일 5월 3일(목) ~ 5일

제주원명선원 중앙선방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행복제작소 활인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 1644-5266 / 070-7519-9929
 자세한 내용은 www.hwalin.net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계율청정종단 불교조계종
1259개 사찰 주지스님과 전국 257만 불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에 맞춰
국민대통합과 민생대통령님의 공약을 환영합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헤인**
종도일동